

스낵시장에 부는 건강 열풍

홍콩지사

홍콩, 아시아 최대의 스낵 시장

- 아시아 최대규모의 스낵시장인 홍콩은 전세계의 다양한 스낵을 수입·재수출하고 있으며, 내수 소비량 또한 높다. 「GTA통계」에 따르면, 2017년 홍콩은 중국, 일본, 대만 등으로부터 총 2억 9천만 달러(약 3,294억 원)의 스낵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홍콩 전체 스낵수입시장의 55%가량은 중국과 일본 스낵이 차지하고 있다. 홍콩 소비자들은 대체로 일본 스낵류를 선호하는 편이며, 스위스나 프랑스 등 유럽에서 수입된 스낵류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 향후 홍콩 스낵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시장조사기관인 「Statista」에 따르면 홍콩 스낵부문의 매출액은 2018년 4억 1,900만 달러(약 4,762억 원)에 달하며, 2021년까지 연평균 7.1%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각지의 스낵 수입식품전문점

- 단위면적당 유통매장의 수가 많은 편에 속하는 홍콩의 거리에는 대형슈퍼마켓,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입식품 전문점이 늘어서 있다. 특히 가공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홍콩 수입식품전문점에는 세계 각지의 스낵 상품이 구비되어 있다.
- 수입식품전문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대부분은 독점 수입상을 통해 공급되며, 제품이 비교적 저렴하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많이 애용한다. 대표적인 소규모 수입전문점으로는 ‘베스트마트360’, ‘759스토어’, ‘아메요코초’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규모 수입전문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1. 베스트마트360
2. 759스토어
3. 아메요코초

건강 이슈로 보는 스낵 판매동향

- 달고 짠 스낵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홍콩 스낵시장에는 곡물 비스킷, 말린 과일과자, 말린 고구마과자 등 나트륨 함유량이 낮고 트랜지지방을 최소화한 과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구입 시 인공첨가물, 설탕, 포화지방 등의 함유량을 자세히 살펴보는 경향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다.
- 이에 따라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스낵업체들은 건강에 좋은 곡물, 채소, 식이섬유 등을 함유한 스낵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다. 특히 홍콩 스낵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칼비(Calbee)와 잭앤질(Jack 'n' Jill)은 건강 트렌드에 부합하는 유기농 칩(Chip)류를 다양하게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홍콩은 출산율이 낮고 노령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건강스낵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 옥수수, 쌀, 밀, 귀리 등을 혼합한 Jack 'n' Jill社의 신제품 Nova
5. 다양한 과일과 채소류를 혼합한 그린데이(Green Day)社의 과자
6. 화학첨가물이 없는 것을 강조한 Calbee社의 포테이토칩

천연유기농재료의 한국산 스낵으로 시장공략

- 한국 제품은 홍콩 현지에서 주로 유통되는 중국이나 일본 스낵류에 비해 제품다양성, 가격경쟁력 등의 열세로 오랜 기간 고전을 면치 못해왔으나, 최근 다양한 상품군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 버섯, 고구마, 김, 과일 등의 천연재료로 만든 한국 제품들은 유기농 재료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간편 패키징을 선보이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스낵 특유의 바삭함을 유지하면서 건강에 좋은 이미지를 내세워 판매한다면 한국 스낵의 입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 견과류, 과일, 전곡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식사대용 시리얼바
 8. 간편한 포장 및 독특한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비스킷 제품
- 홍콩 스낵시장의 경우 수입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시장진입이 자유로워 가격 및 품질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수입 스낵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한국 스낵류의 인지도 또한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원물간식이나 쌀 스낵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통매장으로의 입점을 시도한다면 홍콩 스낵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